

#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인식유형

전미경<sup>1</sup>, 장현정<sup>2</sup>

<sup>1</sup>문경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by Clinical practice Recognition typ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Mi-Kyung Jeon<sup>1</sup>, Hyun-Jang Jung<sup>2</sup>

<sup>1</sup>Dept. of Nursing, Munkyoung University

<sup>2</sup>Dept. of Nursing, Kkottongna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한 주관성 연구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인식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34개의 Q표본을 이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 학년의 간호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PC-QUAN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1유형 '행위중심형'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 상황에 따라 정확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유형 '미래준비형'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전문적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유형 '의존적학습형'은 정확한 간호술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은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효율적인 교육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핵심기본간호술, Q방법론, 주관성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recogni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with Q methodolog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 nursing students of graduate school who had clinical practice using 34 Q samples. The data were analyzed by PC-QUAN progra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1 type 'behavior - centered', core basic nursing is recognized to be performed correctly according to nursing situation, 2 types of 'future preparation type' are core nursing, And 3 types of 'dependent learning type' were categorized as recognizing that sufficient learning is required in school for accurate nursing practice. Analysis of each type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y.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Q methodology, Subjectivity stud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높은 수준의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간호학

에서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행위를 직접 제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환자치료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환자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간호행위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Corresponding Author : Hyun - Jang Jung (janghj@kkot.ac.kr)

Received January 30, 2018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March 2,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구하기 어려우며,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안전에 대한 권리, 학생 수의 증가, 임상실습 교육기관 부족으로 간호학생이 환자에게 직접 간호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간호행위 관찰 경험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1,2].

이러한 직접적인 간호행위 수행의 기회 감소는 간호학생에게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임상수행 능력을 갖추고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며, 자신감 저하, 임상적응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에서는 졸업한 신규 간호사에게 술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3].

한국간호평가원에서는 졸업한 간호학생이 임상현장에 요구되어지는 업무수행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간호술 20가지를 표준화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4]. 또한 졸업 시점의 간호학생이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임상현장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간호학생의 임상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간호학과 실습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내 실습으로 1, 2학년에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3, 4학년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통해 술기를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졸업학년에는 학습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습된 간호술기는 임상실습에서 이론적 지식과 통합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5]. 이와 같이 간호교육과정은 교내 실습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임상실습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간호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로서 매우 중요한 간호행위로 교육과정에 넣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접 수행과 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치며, 임상수행능력 및 수행 자신감이 향상되며 [6-8], 임상에서 발생하는 간호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간호행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2].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육과정 중 운영되고 있는

핵심기본간호술의 교육의 효과 및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모든 교내·외 실습을 마치고 임상에 나가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졸업학년의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인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받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학년의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인식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며 각 유형별 접근 방법을 고려한 교육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유형을 확인한다.
- 2)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받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이 임상실습 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관성을 Q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 2.1 Q모집단의 구성 및 Q표본 선정

Q모집단은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 받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생각과 느낌, 실제 임상 실습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핵심기본간호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10문항으로 구성된 개방적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졸업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면담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과 관련된 158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5개의 진술문을 추가하여 총 163개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진

술문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서 비슷한 의미끼리 배열하고, 비교분석하여 부적합한 문항과 중복된 문항을 제거하였다. Q표본 선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연구주제와 관련성, 자아 지시적인지, 피험자의 수준을 고려했는지, 한 진술문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36개의 Q모집단을 선정하였다[13].

Q표본의 선정은 핵심기본간호술을 담당한 교수 1인과 기본간호학 담당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점검하고, 유사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제거하여 최종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Table 1

### 2.2 P표본의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M지역의 간호학과 학생 중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학년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과 핵심기본

간호술 교육과정이 모두 이수된 단계로 연구자와 학점 등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이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장과 면담내용 및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 2.3 Q분류 및 방법

P 표본인 응답자에게 34개의 Q 표본이 인쇄된 카드를 나눠준 후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 긍정, 부정, 중립으로 진술문을 나누게 하고, 이 가운데서 가장

Table 1. Q-statements

No	Statements
1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어 내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장 기본적인 간호행위로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
3	임상실습에서 수행 해 볼 수 없는 간호술기를 직접해봐서 재미있다.
4	간호학생은 핵심기본간호술기를 하지 않으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5	감염예방에 대해 더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6	핵심기본간호술은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적절한 간호술기를 할 수 있게 한다.
7	핵심기본간호술은 어렵다.
8	실습을 나가기 전 실습에 임하는 자세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9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간호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다.
10	임상에서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1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미래의 간호사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다.
12	실제 임상과는 다르지만 실습하는 것과 관찰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13	실습에서는 관찰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	핵심기본간호술은 끊임없는 연습이다.
15	실제와 비슷한 인형모형으로 실습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환자처럼 대하게 된다.
16	임상과 다른 부분이나 생략된 절차를 알 수 있다.
17	임상에서 간호사가 하는 행위를 관찰할 때 도움이 된다.
18	핵심기본간호술 연습으로 임상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19	실제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20	실습이나 취업에서 필수적인 술기로 진지하게 실천처럼 임해야 한다.
21	핵심기본간호술은 이론으로 공부한 것을 행위로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22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간호사가 된 느낌이 든다.
23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경건해야 한다.
24	1, 2학년에 배운 간호술을 다시 복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25	임상실습 중에는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다.
26	임상에서 사용하는 간호술이므로 실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27	간호사로서 꼭 필요한 간호술이며 완벽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28	임상에서 필요한 행위를 익숙하도록 연습하는 시간이다.
29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술기로 환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30	핵심기본간호술은 가장 기본으로 임상을 대비 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31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한다.
32	연습을 통해 술기 프로토콜을 알게 되므로 임상실습에 도움이 된다.
33	임상에 나가기 전 실제로 하는 기회이다.
34	임상에서 간호행위 대한 비판적 사고와 이론적 근거를 알수 있게 한다.

긍정하는 것부터 중립으로, 가장 부정하는 것부터 중립으로 강제적으로 9점 척도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류된 진술문의 카드 중 Q요인을 해석하기 위해 양극단에 분류된 진술문 2개에 대해 응답자의 의견을 자료수집용 설문지에 적도록 하였다.

###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 처리는 Q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부정(-4)’문항을 1점으로 하여 2점(-3), 3점(-2), 4점(-1), 5점(0), 6점(+1), 7점(+2), 8점(+3)으로, ‘가장 긍정 문항(+4)’을 9점으로하여 점수화 한 후 코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 결정을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유형 3개를 선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Q유형의 형성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주관성을 분류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3개 유형의 인자가중치화 변량을 분석할 결과 전체 변량의 36.75%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은 18.99%, 제 2유형은 10.82%, 제 3유형은 6.93% 이었다. Table 2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by Types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	6.4576	3.6801	2.3560
Variance	.1899	.1082	.0693
Cumulative Variance	.1899	.2982	.3675

각 유형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유형 간 상관관계는 제 1유형과 제 2 유형은 .179,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304,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161로 나타났으며 Table 3, 34명의 대상자 중 제 1유형에는 17명, 제 2유형에는 10명, 제 3유형에는 7명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ypes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Type 2	.179	1.000	
Type 3	.304	.161	1.000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N=34)

Type	Factor weight	Grade	Sex	Age
Type 1	2.9920	4	F	23
	1.8065	4	F	22
	.9982	4	M	23
	.9789	4	F	23
	.8450	4	M	25
	.7854	4	F	23
	.5300	4	F	22
	.5084	4	F	22
	.5048	4	F	24
	.4792	4	M	23
	.4431	4	F	24
	.4219	4	F	22
	.4112	4	F	23
	.3260	4	F	23
	.2390	4	F	24
	.2345	4	M	26
	.2176	4	F	23
Type 2	3.3001	4	F	23
	2.2985	4	F	23
	1.6162	4	F	22
	1.3142	4	M	24
	1.2816	4	F	23
	.8993	4	F	23
	.6822	4	F	25
	.5207	4	F	23
	.2657	4	F	22
	.1657	4	M	24
Type 3	1.3689	4	M	24
	1.0028	4	F	23
	.9070	4	F	22
	.8947	4	F	23
	.7688	4	F	23
	.5087	4	F	24
	5021	4	F	23

### 3.2 유형별 분석

#### 3.2.1 제 1유형 : 행위 중심형

제 1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17명으로 세 유형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여학생 13명, 남학생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인식하는 ‘가장 긍정’과 ‘가장 부정’에 대해 주관성을 나타내는 문항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pm 1.00$ ) and Items Descriptions by Type

No	Statements	Z-score
12	실제 임상과는 다르지만 실습하는 것과 관찰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1.94
16	임상과 다른 부분이나 생략된 절차를 알 수 있다.	1.33
33	임상에 나가기 전 실제로 하는 기회이다.	1.18
T y p e 1	18 핵심기본간호술 연습으로 임상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1.10
	25 임상실습 중에는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다.	-1.11
	6 핵심기본간호술은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적절한 간호술기를 할 수 있게 한다.	-1.13
	7 핵심기본간호술은 어렵다.	-1.24
	19 실제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75
	13 실습에서는 관찰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4
	11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미래의 간호사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다.	-2.15
22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간호사가 된 느낌이 든다.	1.92
32	연습을 통해 술기 프로토콜을 알게 되므로 임상실습에 도움이 된다.	1.59
24	1, 2학년에 배운 간호술을 다시 복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1.42
20	실습이나 취업에서 필수적인 술기로 진지하게 실천처럼 임해야 한다.	1.27
23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경건해야 한다.	1.18
8	실습을 나가기 전 실습에 임하는 자세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1.16
T y p e 2	10 임상에서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19
	1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어 내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1.21
	3 임상실습에서 수행 해 볼 수 없는 간호술기를 직접해봐서 재미있다.	-1.35
	17 임상에서 간호사가 하는 행위를 관찰할 때 도움이 된다.	-1.59
	13 실습에서는 관찰만 하게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3
25	임상실습 중에는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다.	-2.16
1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어 내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1.71
2	가장 기본적인 간호행위로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	1.47
4	간호학생은 핵심기본간호술기를 하지 않으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33
29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술기로 환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1.18
T y p e 3	27 간호사로서 꼭 필요한 간호술이며 완벽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1.17
	32 연습을 통해 술기 프로토콜을 알게 되므로 임상실습에 도움이 된다.	1.07
	25 임상실습 중에는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다.	-1.06
7	핵심기본간호술은 어렵다.	-1.13
22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간호사가 된 느낌이 든다.	-1.21
5	감염예방에 대해 더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1.34
11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미래의 간호사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다.	-1.42
12	실제 임상과는 다르지만 실습하는 것과 관찰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1.56
15	실제와 비슷한 인형모형으로 실습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환자처럼 대하게 된다.	-1.58
13	실습에서는 관찰만 하게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

제 1유형은 임상실습 시 간호사 행위를 관찰하면서 교내에서 실습했던 핵심기본간호술과 비교하면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지만 실제 임상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과 그로 인한 자신감 저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실제 환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면

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에 대해 어렵게 느끼고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가장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인자 가중치 2.9920)를 면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대상자는 「실제 임상과는 다르지만 실습한 것과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게 된다」와, 「임상과 다른 부분이나 생략된 절차를 알 수 있다」에 대해 “학교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이론과 술기를 실습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한 것과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간호술을 비교·관찰하면서 간호 상황에 따른 간호행위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미래의 간호사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다」에 대해서는 부정의 의견을 보였는데 이는 “간호행위를 통해 미래의 자신이 간호사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핵심기본간호술은 주어진 간호 상황에서 필요한 간호행위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술기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 가중치가 높은 대상자의(인자가중치 1.8065)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과 다른 부분이나 생략된 절차를 알 수 있다」에 대해 “학교에서 실습한 간호행위를 임상에서 관찰하면 흥미롭지만 핵심기본간호술기 프로토콜과 임상현장에서의 간호행위가 다를 때는 술기를 연습하기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시 핵심기본간호술을 직접 수행하게 될 때에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간호행위를 하는 것으로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정확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제 1유형의 대상자들은 간호행위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하는 것에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과 임상현장에서 관찰된 행위가 다르게 수행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을 느끼기도 하며, 모형을 통해 충분한 연습을 하지만 현실감이 느끼지 못하고 임상에서 실제 환자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 정확하게 답변을 하거나 술기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제 1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핵심기본간호술기는 환자에게 직접 수행되어지는 행위로 프로토콜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졸업 후 간호사로서 정확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 1유형을 행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 3.2.2 제 2유형 : 미래 준비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10명이며 이 중 여학생 8명, 남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가장 긍정’과 ‘가장 부정’의 주관성은 나타내고 있는 문항은 Table 5와 같다.

제 2유형은 핵심기본간호술은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며, 환자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핵심기본간호술 습득이 임상실습과 향후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위의 반복적인 연습이 자신을 준비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가장 대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인자 가중치 3.3001)를 면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간호사가 된 느낌이 든다」와 「연습을 통해 술기 프로토콜을 알게 되므로 임상실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해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비로써 간호사가 전문직이라는 느껴지면서 자부심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핵심기본간호술은 임상에서 정확한 간호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임상 실습 중에는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다」에 대해서는 임상실습 중 병원에서 실습하는 교과목에서는 관찰과 직접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역사회에 실습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간호행위에 대한 관찰이나 수행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인자 가중치가 높은 대상자의(인자가중치 2.2985)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경건해야 한다」에 대하여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간호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인 「실습에서는 관찰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임상실습 중 간호행위를 관찰하고 간호사의 관리 하에 직접 술기를 수행해 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핵심기본간호술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의 대상자들은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술기이며, 간호행위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배워야 하는 술기

와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습하여 간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이 임상 현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병원별 특징과 다양한 간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간호행위는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제 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핵심기본간호술기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준비하는 과정, 임상 실습 참여 전 준비하는 단계, 향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 2유형을 미래 준비형으로 명명하였다.

### 3.2.3제 3유형 : 의존적 학습형

제 3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7명이며 이 중 여학생 6명, 남학생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임상실습 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가장 ‘긍정’과 ‘가장 부정’의 주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항은 Table 5와 같다.

제 3유형은 핵심기본간호술은 환자에게 직접 수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행위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로 중요하게 인식하며, 임상실습에서 간호행위 관찰 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간호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임상실습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아 이 유형을 가장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인자 가중치 1.3689)를 면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어 내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에 대해 “핵심기본간호술은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임상실습에서 관찰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학교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가장 부정문항으로 선택한 「실제와 비슷한 인형모형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환자처럼 대하게 된다」에 대해서는 모형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긴장감이 낮아지고 촉감이 사람과 다르며 실제 환자를 만나게 되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 가중치가 높은 대상자의(인자가중치 1.0028)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간호행위

로 학교에서 더 배워야 한다」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직접 수행하는 간호행위로 위험한 상황이 많을 수 있는데 실습 시 임상현장에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한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문항으로 선택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면서 간호사가 된 느낌이 된다」에 대해서는 임상에서 수행되는 간호술이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과 다른 부분이 있어 어렵게 느껴지며 연습할 때 너무 힘들어 자신이 간호사가 되어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제 3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임상현장에서 간호행위에 대한 관찰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간호술에 대해 배우고 충분한 연습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 3유형을 의존적 학습형으로 명명하였다.

##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받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학년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인식유형으로는 ‘행위 중심형’, ‘미래 준비형’, ‘의존적 학습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제 1유형인 ‘행위 중심형’은 주어진 간호 상황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정확한 수행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간호 상황과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 술기를 연습하고 임상실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토콜에 따른 핵심 기본간호술의 수행 방법과 임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술기 수행이 프로토콜과 다르게 수행되는 점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임상에서 제한된 간호 술기의 수행으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적절하게 간호술기를 경험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애경 등(201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능력,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임상실습 수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간호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8, 14).

이 유형의 특성을 볼 때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이

임상과 최대한 동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술기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술기를 시행 할 수 있는 임상현장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 2유형은 ‘미래 준비형’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준비된 전문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환자에 대한 마음과 임상 실습 전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의 학습 경험이 졸업학년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 신규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7, 18].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및 관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교내의 실습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 3유형은 ‘의존적 학습형’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술기이며 환자에게 직접 수행 되어지는 간호행위이지만 현실적으로 임상에서는 관찰이 많으며 직접 수행 경험을 하는 경우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임상실습 전에 학교에서 더 많은 술기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숙 등(2015)의 연구에서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재교육이 간호학생의 술기 수행 능력 및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유형의 인식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과 유사한 실습 환경과 술기 프로토콜, 임상실습교과목과 연계한 술기의 반복 연습 등 단계적 교육으로 술기 수행의 숙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20, 21].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교내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을 시작으로 시뮬레이션 실습 등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을 연습하고, 3, 4학년의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하거나 직접 수행해보도록 하며 졸업학년에 대해서는 핵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행능력의 향상과 자신감, 임상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3개의 유형 모두 간호행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하고 현실감 있는 간호 상황의 제공과 그에 따른 간호수행,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졸업학년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인식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을 하여 각 유형에 효율적인 교육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핵심기본간호술기는 임상현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수행하는 간호행위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충분한 실습과 임상에서의 수행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 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 자신이 준비된 간호사로서 자신감 성취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효율적이며, 임상에서의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인식하는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 전략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전략을 개발·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 실습을 경험하지 않는 학년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인식유형을 확인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의 인식의 차이와 학습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J. Kang, J. O. Kim, H. S. Kim, S. O. Choi & H. M. Hwang. (2016). Effects of the Self-observation method of Essential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confid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227-241.
- [2] E. Y. Yeom (2016). The Perception Types of Nursing Students in Team-Based Simulation Learning: An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ientific Study of Subjectmty*, 32, 27-47.
- [3] I. S. Lee & C. S. Park. (2015).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Fundam Nurs*, 22(3), 297-307.
- [4]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 KABON <http://www.kabon.or.kr/> (2014)



- [5] J. K. Kim (2016). Subjectivity of Job Values among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ientific Study of Subjectmty*, 34, 5-25.
- [6] H. H. Han. (2016). A Study of Convergence on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55-362.
- [7] D. W. Choi. (2014).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184-191.
- [8] M. Y. Oh. (2017). *A Study on the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Kongju University.
- [9] S. Y. Kim. (2017). The Effects of Imagery Training on Outcomes of Clinical Competence, Voluntary Practice Time and Nursing Skill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1), 76-85.
- [10] M. O. Yoon & Y. S. Ju. (2017). The effects of Peer Mentoring Learnings-based Preclinical OSCE program on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285-295.
- [11] J. J. Hong & C. S. Song, (2016). Essential Basic Nursing Skill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1(12), 147-155.
- [12] M. Y. Jho (2014).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Fundam Nurs*, 21(3), 292-301.
- [13] H. G. Kim. (2008). Q Methodology: Analysis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philosophy theory." Communication books.
- [14] S. O. Kim. (2017).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Konyang University.
- [15] I. S. Hyun & Y. J. Bae. (2017).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the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Lower-Class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 163-171.
- [16] M. S. Jung & Y. S. Kwon. (2015).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Confid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295-302.
- [17] A. K. Han, D. S. Cho & J. S. Won. (2014).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2), 162-173.
- [18] S. S. Bang. (2014).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 Unpublished master's Sahmyook University.
- [19] M. J. Kim & S. Y. Yoo. (2014). The Perception-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2(1), 105-118.
- [20] E. H. Hong & M. G. Kim. (2017). Experiences of convergence external appraisal of competency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93-104.
- [21] Y. O. Ha & J. Y. An.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Nursing Skills Improvement Program on Nursing Skills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5), 223-231.

전 미 경(Jeon, Mi Kyung) [정회원]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1년 4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노인
- E-Mail : jeonmk4311@nate.com

장 현 정(Jung Hyun Jang) [정회원]



-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꽃동네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폐경, 산후 우울

▪ E-Mail : janghj@kkot.ac.kr